

“컴퓨터로 만나는 부처님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뇌성마비 불자 천정욱씨

또다, 또다, 또다... 컴퓨터 자판기 소리와 함께 단말기에 하얀 글씨가 이어진다.

“회원 여러분들 환영기에 건강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떠나는 사찰순례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군요. 왜냐구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컴퓨터 하이텔 불교동호회 장에법우들을 위한 모임인 ‘철연회(회장 임종욱)’ 회원 천정욱(21·부산 거제동)씨는 이번에는 사찰순례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천씨와 컴퓨터 통신을 통해 대화를 하던 회원들이 모니터에 즉각 반대 의견을 내놓는다.

“지난달 시흥 법통사 순례 때는 잘 다녀왔잖아요? 정욱씨가 불참하면 아마 회원들 모두가 가지 않을거예요.”

“알았어요. 신중히 생각해 볼게요.”

천씨가 바깥 의견을 꺼려하

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급 뇌성마비로 혼자 힘으로 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후 7개월 때부터 신체에 이상조짐이 나타나 정상적인 발육이 되지 않아 도리없이 20여년간을 집안에 서만 생활해야 했다. 그동안 천씨는 개인택시를 하는 아버지와 집 근처 사찰을 다녀오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 바깥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학교수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가족



○발가락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천정욱씨가 컴퓨터를 통해 새 삶을 살고 있다.

독학으로 컴퓨터... 발가락 하나로 통신 ‘척척’

과 지내는 시간외에는 거의 하루종일을 홀로 지냈다. 그러다보니 천씨가 자신의 성대를 울려 구할 수 있는 단어는 1백개 내외.

그런 천씨에게 문명의 이기라는 컴퓨터는 돌도 없는 친구요. 소중한 애인이며 법우다. 2년전 선물로 받은 컴퓨터를 발가락 하나(왼쪽 발가락) 외에

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함)으로 이리저리 맴돌지만 그는 순전히 독학으로 컴퓨터를 익혔고 ‘철연회’와 인연을 맺게 됐다. 매주 한번씩 찾아오는 회원들과의 만남이 천씨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자신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들 법우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손으로 합장합니다.”

이 천씨가 매일 컴퓨터 통신을 시작하면

이제는 불교 초발심자들이 대부분인 철연회 회원들의 인사법이 되었다.

요즈음 천씨는 몸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도 컴퓨터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친구를 사귀는 즐거움에 빠져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한다.

부산=박경근 기자

“10·27 법안 진상규명 정부에 촉구”

전불련등 교계단체 성명발표... 5·18특별법도 요구

전불련, 재불련, 불민협은 지난달 25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5·18학살 및 10·27학살 입자 참회 촉구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 참가한 단체들은 10·27법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불교내 부역자 인사의 참회, 조계종단을 비롯한 각 종단의

의 진상규명의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5·18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도 같은날 발표한 성명에서 “10여년간 불교를 분규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10·27법안의 진상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것은 현정부의

부도덕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2천만 불교도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천승가회는 26일 보광사에서 10·27법안 15주기 및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국법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철스님 추모 다채

조계종 전 종정 성철스님 열반 2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기념사업이 해인사와 백련암에서 펼쳐진다.

해인사 백련암 성철스님문도회(대표 법전스님)는 성철스님의 기일인 11월12일 오전 10시 30분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추모제를 봉행한다. 이어앞서 문도회는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백련암 고심원에서 ‘성철선사 추모 철원철야 참회법회’를 봉행한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참회법회는 성철스님문도회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하여 매일 2시간씩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제 참회기도로 7일동안 이어진다.

또한 문도회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를 바로 봅시다’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밖에 문도회는 성철스님 사리탑을 내년 4월에 착공, 98년 완공할 예정이며 성철스님 불교학술상 및 논문상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상할 계획이다.

현재 문도회는 ‘남 모르게 남을 도읍시다’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의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선림교경서>를 비롯한 역경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불교단체에 지원금

불심홍법원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사장 정관)은 10월24일 사내 식당에서 하반기 불교단체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부산불교중앙협의회, 고동학연협회, 대불련부산지부, 세진포교원 등의 단체가 각각 1백만원씩

지원금을 받았다. 불심홍법원은 연간 1천만원의 신행단체 보조금과 1천만원의 지도법사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의과생 4백여명

조계사에서 농성계속

조계사에서 농성 9일째를 맞고 있는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회 소속 학생 2백여명과 의부에서 합세한 학생들 4백여명은 지난달 25일 조계사에서 집회를 가진 후 종묘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에 반대한다’며 조계사 대웅전 뒷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조계사내 농성은 94년 8월 전기협 노조와 지난달 6월 한국통신 노조 농성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새 이사 고산·법장스님

동국학원 법인이사회

동국학원 법인이사회(이사장 복원스님)는 지난달 23일 타워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신임이사로 고산(쌍계사 주지)법장(수덕사 주지, 현 감사)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복원(직지사 회주)현성(현성정사)벽파스님 서문각(진흥원이사장)송석구(동대총장)유주형(동대총동창회부회장)안재찬(부천영서교 이사장)씨는 유임됐다.

티베트문화원 대구에 설립

국내 처음... 학술·문화등 교류확대 기대

티베트문화원이 국내 처음으로 대구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사주지 도운스님, 해인사 백련암 원택스님도 동참했다.

화엄사상연구소 설립

화엄사 본말사 주지·문도총회 기금조성 결의

화엄사(주지 종월)는 지난달 22일 끝난 보살계 수계법회와 부처님사리 친견법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내년에(가칭)도광 도전 장학회와 화엄사상연구소 설립한다. 이는 지난달 9일에 열린 화엄사 본말사 주지 및 문도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살계법회에 사부대중 2만여명이 동참, 50여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장학회와 연구소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복식회계시스템 도입 등 조계종 재무행정 현대화

조계종은 복식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단의 재무행정에 획기적인 현대화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종단의 자산관리 및 재무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무행정을 지향하기 위해 조계종은 ‘재무회계규칙(안)’을 만들어 재무회계관리의 전산화도 추진해 내년 총무원 예산편성부터 적용, 점차적으로 세부적 보완작업을 거쳐 직영사찰·교구본사 등으로 시행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실천승가회 중앙위 개최

실천승가회(공동의장 철하·지선스님)는 지난달 25일 근본도량 파주 보광사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실천승가회가 소속한 종교인협의회는 오는 2일 오후3시 보광사에서 ‘종교인 대화모임’을 개최하고 종교간에 왜곡돼 있는 부분을 상호 이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4일 청소년 어울마당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제3회 청소년 어울마당을 오는 4일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한다.

경찰청 경승실 3돌 법회

경찰청 경승실은 지난달 28일 경찰청 법당에서 경찰과 가족들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멸 3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자민련 불자회 창립

자유민주연합 불자회가 지난달 25일 창립됐다. 자민련 불자 1백여명은 이날 자민련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회장에 김용재부총재를 선임하고 지도법사에 만다스님(대전포교원장)을 위촉했다.

12일 삼보불사 회향법회

금년을 ‘삼보실현의 해’로 정하고 운동을 펼쳐온 삼보법회(회장 조호정)가 11월12일 삼보정사에서 삼보불사 회향식을 행한다.

삼보회는 이날 대웅전 본존불 개공불사, 법요집편찬사업, 향적당 개보수 불사를 회향한다.

조계종 16회 단일계단 수계산림 3백30여 스님 구족계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달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제16회 단일계단(전계대상 일타) 구족계 수계산림을 실시했다.

이번 구족계 수계자 신청자는 사미 1백78명, 사미니 1백58명으로 첫날 승가고사와 수계자 심사를 거친 후 둘째날 수계산림법회 일정에 들어갔다. 5일간의 교육일정은 승의, 율학, 위의문강의(니승:대에도

범어사 7인 수습자문위 구성

경동아파트 건립반대등 문중의견 대변

경동건설측의 불사경비 지원설 등으로 따가운 여론의 화살을 받았던 범어사가 지난달 20일 휴휴정사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아파트 건립반대를 원칙으로 한 7인 수습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산중총회에서는 흥교, 백팔참회, 사본계본독송 등으로 진행됐다.

“고속철 경주우회도 안된다”

문화재위원회 성명... “古都 보존법 제정 시민 불이익 해소”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를 위한 백인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 최고정책심의기구인 문화재 위원회(위원장 임창순)가 고속철 경주통과 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한국의 집에서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 를 갖고 성명서를 통해 “일제가 파괴한 경주를 우리가 다시 파괴하려 드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고 후손들에게 오욕의 역사를 남겨주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며 “건교부의 고속철도 경주통과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경주 시민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면서 고도(古都)를 효율적으로 보존하

기 위해 ‘고도보존법’ ‘역사고도공치보존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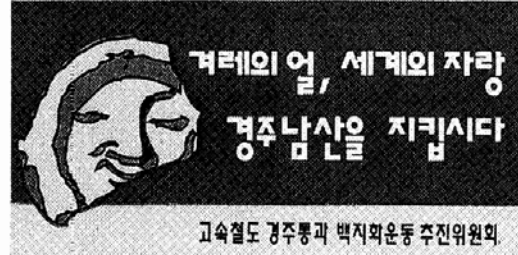
이와 관련 임위원장은 “경부고속철의 경주통과안 철회요구는 고속철의 경주 도심통과는 물론 우회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일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본부 가 관계기관에 보낸 선언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건교부, 문화재관리국이 변방 및 협의를 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또한 부산 범어사 부주지 혜충스님을 비롯한 스님들도 지난달 17일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을 방문하고 △경부고속철

도 금강산 범어사 철도구간 지하터널화 △총학역 노도동건립 △경주통과 우회를 건의했다.

티베트문화원 설립에는 총정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회

이 시대의 참다운 불교결집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은 국내 40여 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근본불교의 『결집』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현대사회의 제문제를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을 생생한 삶의 지침으로 승화시킨 대중불교 『결집』입니다.

■ 구성: 제1장 불교란 무엇인가
1. 불교의 본질 2. 불교의 역사와 발달 3. 오늘의 세계와 불교

제2장 불교와 현대사회
1. 가정 2. 현대사회와 교육 3. 환경과 생명 4. 미래의 불가 5. 노동 6. 일상생활 7. 사회윤리 8. 복지 9. 과학 10. 사회와 국가 11. 문화 12. 정보통신 13. 미래사회 14. 타종교에 대하여

제3장 불자의 신행
1. 무엇을 믿을 것인가? (佛寶) 2. 어떻게 닦을 것인가? (法寶) 3. 불자의 자세 (僧寶)

● 사양: 4×6배판, 606p, 양장제본 ● 발행: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02)719-2606 ● 정가: 20,000원 ● 보급: 도서출판 대원사 (02)757-6717

화제의 신간

(보문품)의 가르침을 우리의 언어로 새롭게 쓴 생명 법문

관세음보살 보문품강화 普文品講話

법령스님 지음

신국판/값 8,000원

관음독송경 시리즈

- 우리말 금강경(심재영/값 2,000원)
- 한문 금강반야바라밀경(심재영/값 2,000원)
- 우리말 불설아미타경(심재영/값 2,000원)
- 한문 불설아미타경(심재영/값 2,000원)
- 우리말 천지पाल심주경(이청범/값 2,000원)
- 한문 불설천지पाल심주경(이청범/값 2,000원)
- 우리말 예불대참회문(심재영/값 2,000원)
- 지장보살본원경(동봉/값 6,000원)
- 원각경 보안보살장·팔양경(경홍/값 2,500원)
- 천수경(근간)
- 부모은중경(근간)
- 관음경(근간)

● 사양: 4×6배판, 606p, 양장제본 ● 발행: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02)719-2606 ● 정가: 20,000원 ● 보급: 도서출판 대원사 (02)757-6717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전화: (02) 921-8434, 929-3470 팩스: (02) 929-3470

관음출판사